

# 원데이 클래스

## 천사용의 손가락 인형



### ▣ 파트1: 치키키 수리수 압! 조각천들의 캐릭터 변신

#### ▣ 활동유형

1. 5세 별도 진행
2. 6세, 7세 혼합 연령 수업 가능
3. 7세, 8세 혼합 연령 수업 가능
4. 8세, 9세 혼합 연령 수업 가능
5. 시간은 1시간 30분

#### ▣ 준비물

다양한 조각천, 유아용 면장갑 (천도 좋고 실리콘류의 장갑도 좋다), 오공본드

#### ■ 활동방법

\* 본 원데이 클래스는 주어진 주제에 작업과정을 통해 (미술적 작업은 어떤 만들기의 방법이 지도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시된 재료를 크레이티브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점이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교사의 수업 방향이 된다.

작업 과정에 교사는 자신의 것도 만들면서 자신이 작업하는 캐릭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교사의 캐릭터 이야기를 듣고 교사가 자유롭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모방을 하면서 자신들도 자유롭게 마음껏 표현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생각하면서 손가락 인형의 작업이 완성된 후에는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 절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하지 않도록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발상이 되지 않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없게 된다.)

1. 수업 전에 다양한 천을 준비해둔다. 여러 가지 조각천이면 된다.

동대문 방산시장 등에서 조각천을 구입해도 좋고

집에 있는 못입는 옷이나 천들을 손수건 크기 만큼 잘라서 비치해도 좋다.

여튼 다양한 조각 천을 준비하도록 한다.

(조각천의 사이즈는 아주 작아도 좋다. 최대 사이즈는 손수건 사이즈 정도 이다.)

2. 손가락 인형은 꼭! 5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애들아! 우리 오늘 이 장갑에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해볼거야.

그런데 먼저 어떤 캐릭터를 내가 만들것인지 생각해야겠지

지금 이 시간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니? 내가 지금까지 본 그림책을 떠올려봐.

선생님은 떼굴떼굴 굴러가는 빨간 사과 이야기가 떠올라. 이 이야기는 내가 지은 이야기이

긴해. 떼굴떼굴 빨간 사과가 굴러가다가 아기 토끼를 만나고 여우 선생님을 만나고

코끼리 아줌마를 만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빨간 사과랑 아기 토끼 여우 선생님 코끼리

아줌마를 만들거야.

너희도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이 교실에 있는 그림책을 참고해서 캐릭터를 생각해봐도 좋아. 선생님이 10분의 시간을 줄테니 한번 캐릭터를 먼저 머릿속으로 정해보고 우리 여기 놓여진 천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작업을 시작해보자.

3.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각 캐릭터도 구체적으로 천으로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의 발상이 될 수 있도록 교사는 자신의 캐릭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또한 즉흥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자랑하듯이 말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아이는 모방해서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표현의 구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선생님의 빨간 사과를 여행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맨날 웃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웃는 사과를 만들거야. 이사과는 모자를 썼다. 나 이천으로 고깔 모자 만들어야지

(캐릭터의 특별한 모습을 정하게 하기 위함으로 자극한다.)

코끼리 아줌마는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앞치마를 매고 있어

앞치마는 이 천을 해봐야지, 이 앞치마에 다른 천으로 걸레를 넣을 수 있게 큰 주머니도 붙여 줘야지 (구체적인 표현의 작업을 유도함이다.)

코끼리 아줌마는 어떤 표정을 하지? 웃는 표정할까? 힘든 표정할까?

(이런식으로 물어봄으로써 아이들도 자신의 캐릭터 표정을 정하게 되고 좀더 구체화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근데... 선생님의 여우 선생님은 큰 수첩을 늘 가지고 다녀. 이 수첩은 이 천으로 만들어야지 선생님은 여우 선생님 주머니에 예쁜 볼펜도 색연필도 이천으로 네모길게 잘라서 붙여 줄거야. 여우 선생님은 진짜 공부를 잘 가르치는 캐릭터야.

이렇게 교사가 먼저 자신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의 구체작업과 자신의 캐릭터를 구체화하면서 즉흥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자극 시키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함으로써 아이들 또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다. 교사는 아이의 캐릭터에 대해서 물으면서 작업을 유도한다.

이 캐릭터는 주인공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이 캐릭터는 무엇을 좋아해?

이 캐릭터는 지금 기뻐? 아님 슬픈 상황이 생겼어? 등등을 물어본다.

4. 아이들의 장갑도 면봉을 이용하여 물감을 찍어 무늬 넣기를 해도 좋다.

또는 물감을 부분 부분 묻혀서 데칼코마니처럼 찍기하고 문질러서 색이 번지게 해서 조금 멋스럽게 물들여도 좋다.

5. 완성된 캐릭터는 자신의 장갑 손가락에 붙인다.

6. 손가락 인형이 완성되면 자유롭게 자신의 캐릭터를 소개하거나 상황 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하도록 한다.

선생님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다.

동그란 빨간 사과가 떼굴떼굴 굴러 숲속 산책을 하고 있었어

가다가 바위 근처에서 여우 선생님을 만났다. 여우 선생님은 빨간 사과한테 아이들한테 사과  
그리기 수업을 해야하는데 모델이 되달라고 했어. 그러면 크레파스를 선물로 주겠다고

사과는 생각해볼게요 하고 그냥 갔다.

또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코끼리 아줌마를 만났어. 코끼리 아줌마가 빨간사과 너 몸이 너무 흠  
투성이라며 내가 걸레로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예쁜 앞치마의 큰 주머니에서 걸레를 꺼내는 거  
야. 사과는 걸레는 냄새나서 싫다며 막 도망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스토리텔링한다.)

7. 각 어린이들의 스토리텔링을 자유롭게 듣고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교사가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한다. 질문 방식은 육하원칙에 의해 하면 어렵지 않다.

이 캐릭터는 누구야? 이 캐릭터는 무엇을 하고 있어? 이 캐릭터와 이 캐릭터는 어떤 관계  
야? 등등.... 왜? 언제? 어디서? 6하 원칙을 활용하여 질문을 하면서

어린이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